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34장 1-8절

날짜: 3월 15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창세기 34장은 믿는 가정에 어떻게 이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은 원래 간교한 자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숙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도망치던 자였습니다. 야곱은 우리 모든 죄인의 대표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체와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앞길을 스스로 닦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서 광야의 밤을 지내던 야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왜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라고 한 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힌 사람에게 주시는 철저한 보장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며 그곳을 '벧엘', 즉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얻었고, 삼촌 라반과의 갈등과 형 에서와의 원수 맺은 문제도 모두 해결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벧엘'로 돌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벧엘로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단 동쪽 '숙곳'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 떼를 위해 우리를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영이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목

적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얻고도 교회에 와서 "내 병 고쳐주세요, 세상에서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는 수준입니다.

이후 야곱은 숙곳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이만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장소는 세겜이 아니라 벧엘이었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린 채 세겜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여 할례를 구실로 세겜의 남자들을 숙이고 그들을 몰살하는 잔인한 복수를 행합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 가나안 족속들에게 냄새를 피우게 되었고, 온 가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선택 받은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을 허락하십니까?" 하지만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야곱이 벧엘로 가야 하는데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 옮기시려고 '사랑의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환경을 이용해 야곱의 고집을 꺾고 벧엘로 향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나'라는 사람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개인이 복 받고 천당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굽는 목적이 집을 짓기 위한 것이듯,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즉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우주는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고 사

랑을 쏟을 대상인 '교회'를 원하신다는 신비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도 결국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벧엘 꿈 역시 하나님의 집, 곧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역경을 겪을 때 인간의 편에서 보면 원망뿐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를 신령한 위치로 옮기기 위한 유익한 도구입니다. 세겜에 머무는 신앙을 버리고 벧엘로 가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원 얻은 것에만 만족하여 세겜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벽돌로 쓰임 받는 '벧엘의 신앙'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영어 영상 플레이리스트 소식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성도님들의 영어 말씀 묵상과 영적 성장을 위해 창세기 핵심설교를 영어로 번역한 오디오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 되었습니다.



Sermon of the Week:



The Road to Bethel: How Hardships Spur Us On

Passage: Genesis 34:1-8(ESV)

Date: March 15, 2026

Pastor: Dong Suk Chung

Genesis 34 begins with a difficult question: how can such tragic and shameful events occur within a family of faith? Jacob was originally a cunning man—one who tricked his father and brother to steal the birthright before fleeing. He represents all of us as sinners; he was someone who trusted in his own flesh and wisdom, turned away from God, and tried to pave his own path.

However, in Genesis 28, a profound revelation from God comes to Jacob while he is spending a night in the wilderness. Surprisingly, God didn't lecture him or say, "How could you be so dishonest?" Instead, He offers a promise: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and I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This is an absolute guarantee given to those whose lives are led by God's plan rather than their own schemes. When Jacob woke up, he realized, "The Lord was here all along, and I didn't even know it!" He called the place Bethel, meaning "God's House" and the "Gateway to Heaven."

By God's grace, Jacob acquired great wealth and resolved his conflicts with Laban and Esau. All that remained was to return to Bethel, as he had promised God, and build God's house there. But Jacob did not go straight to Bethel.

First, he stopped at Succoth, east of the Jordan. Scripture records that there he "built a house for himself and made shelters for his livestock." This represents a state in which a person has received tremendous grace and been saved in spirit, yet whose life and purpose is still centered on the

"self." It represents a spiritual level where, even after attaining salvation, one comes to church and offers only self-centered prayers, asking, "Please heal my illness" or "Please grant me peace in this world."

Jacob then left Succoth and entered Shechem in the land of Canaan, where he pitched his tent and built an altar. He settled into a sense of self-satisfaction, thinking, "I'm living a proper life of faith." But God's appointed place was Bethel, not Shechem. Satisfied with merely enjoying his salvation, he lost sight of God's ultimate purpose and settled down in Shechem.

While Jacob was comfortably settled in Shechem, a horrific tragedy occurred: his daughter Dinah went out to visit the women of the land and was defiled by the son of the local chief. Furious, Jacob's sons deceived the men of Shechem by demanding circumcision as a condition to marry their women, then massacred them all in a brutal act of revenge. As a result, Jacob became a "stench" to the Canaanites, putting the entire family in danger.

We may ask: "God, why do You allow such tragedy in a chosen household like Jacob's?" The answer becomes clear when we look from God's perspective rather than man's. Because Jacob was lingering in Shechem when he should have been at Bethel, God raised a "scourge of love" to awaken and move him. It was a process of using circumstances to break Jacob's stubbornness and redirect him toward Bethel. God values the transformation of a person into someone fit for His use far more than He values that person's outward circumstances.

God did not save us from sin merely so that we as individuals could be blessed and go to heaven. Just as bricks are fired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house, the purpose of our salvation is to build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God's eternal dwelling place.

The universe exists for humanity, and

human beings were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in order to be united with Him. God's gift of Eve as a wife to Adam reveals a mysterious truth: that God did not wish to be alone, but desired the 'Church' as an object upon which to pour out His love. Likewise, the ultimate purpose of liberating Israel from Egypt was to build the temple in Canaan. Similarly, Jacob's dream of Bethel signifies the House of God—the Kingdom of Heaven.

From a human point of view, suffering is a reason to complain—but from God's point of view, it's a strategic move to get us where we need to be spiritually. We must move on from the faith that settles in Shechem and go on to Bethel. We must let our "self" die so that we can enter a life where Jesus Christ truly reigns.

Do not be satisfied with salvation alone and remain in Shechem. Press forward each day towards the faith of Bethel—putting to death the deeds of the flesh, governing the body through the Spirit, and being used as a living brick to build God's Kingdom.

New English Sermons!

We would like to announce a new audio series on YouTube featuring English translations of key sermons from Genesis.

We hope that this series serves as a valuable resource for personal meditation, spiritual fellowship and outreach for English-speaking children, EM (English Ministry) members, and the English-speaking community.



Playlist found here: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